

# '독립투쟁의 역사' 짜임새있게 정리

## 「독립운동사 교양총서」 시리즈... 1차로 11권 선보여

나라를 지키고자 외세에 맞섰던 선조들의 역사적 기록을 모은 「독립운동사 교양총서」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신용하)에 의해 발간됐다. 이 교양총서는 산발적으로 저술돼왔던 독립투쟁의 역사를 체계있게 집대성하여 학생·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하겠다는 기획 아래, 우선 그 첫 결실로 11권을 선보였다.

이 교양총서는 독립기념관의 전시관 주제에 따라 크게 ①민족전통 ②근대 민족운동 ③일제침략 ④3·1운동 ⑤독립전쟁 ⑥임시정부 ⑦대한민국 등 7개 영역으로 갈라 각각에 해당하는 주제의 저술내용을 담고 있다. 각권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집필됐으며, 내용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진자료도 선별해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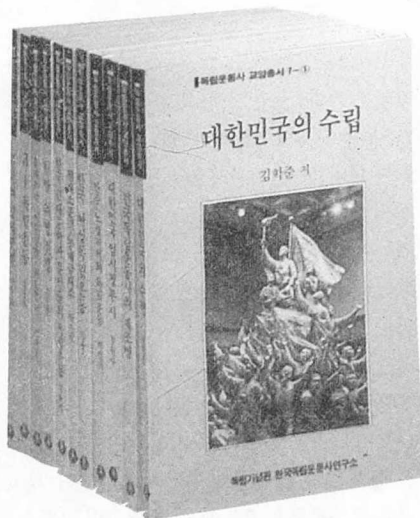
### 대한민국수립 시기까지 민족운동 총망라

이번에 나온 11권 가운데 신채호의 「을지문덕전 / 이순신전 / 최도통전」과 박은식의 「천개소문전 / 몽배금대조」의 두권은 모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했던 시기에 저술된 것을 번역해 실은 것. 을지문덕, 천개소문 등의 영웅적인 투쟁정신을 한민족에 고취시킴으로써

국권회복을 바라고자 했던 저자들의 은밀한 저술의도가 드러나 있다.

그런가 하면 의병전쟁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한말 의병전쟁」(조동걸)은 1894년부터 발단돼 20년간 지속된 의병전쟁을 4시기로 구분해서 살핀 본격적인 연구저서. 저자는 의병전쟁이 민족적 확대과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결국 민족적 자유전쟁으로까지 전개됐고, 일제하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신용하교수의 「3·1독립운동」은 범민족적으로 장엄한 항일투쟁의 발화점이 된 3·1운동의 배경과 조직화,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정리,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을 준다.

한편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시기는 국내외에서 다각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된 시기. 따라서 이 교양총서에서도 이 시기의 독립운동사를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박영석)은 만주와 노령지역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의 무장투쟁을 서술했는가 하면, 문학운동과 정치적 독립운동의 관련양상을 분석한 「한국근대문학과 문인들의 독립운동」(김윤식)이나 국난극복의 역사적 주역으로 활동한 여성들의 구국운동을 고찰한 「한국여



성독립운동」(박용옥)은 각각 상이한 주제로 독립운동사에 접근하고 있어 흥미롭다. 또 「한국독립운동사의 재조명」에는 한말 독립운동에 관한 주제별 논문들을 실었는데, 김준엽·신용하·윤병석·박영석·진덕규 교수에 의해 씌어진 논문 5편의 주제들도 주목을 끈다.

3·1운동의 정신적 結晶으로 탄생된 상해 임시정부 27년의 종적을 4시기로 나눠 살핀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추헌수)는 혼란한 국제정세의 영향 속에서 망명정부가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논술한 「대한민국의 수립」(김학준)은 3년간의 미군정 정책과 연합군에 의한 분할점령 등에 우리민족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이밖에 다른 교양총서들과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한국의 경제발전」(박우희)도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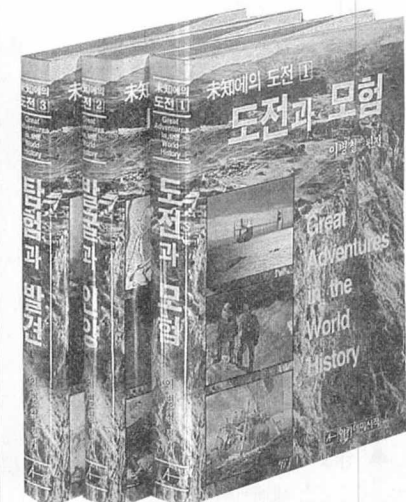
전문필진에 의해 주제별로 민족독립운동의 역사과정을 개괄하게 될 이 교양총서는, 앞으로 주제가 선정되는 대로 계속 보완할 계획으로 있다. 내년에 발간될 9권의 주제는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①독립군 ②학생독립운동 ③한말의병장열전 ④한말 애국계몽운동 ⑤항일 애국시감상 ⑥광복군 ⑦일제침략사 ⑧의열투쟁 ⑨독립군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재조명 등.

이 교양총서는 그동안의 개별적 연구성과를 새롭게 집필, 짜임새 있게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원 기자

# '도전의식' 테마로 한 탐험의 역사

## 「未知에의 도전」 시리즈(3권)... 1400여장의 컬러사진 수록



「도전의식」을 테마로 모험과 발굴, 탐험에 얽힌 이야기를 컬러사진과 함께 엮어나간 「未知에의 도전」 시리즈(전3권)가 최근 출간됐다. 1권 「도전과 모험」, 2권 「발굴과 인양」, 3권 「탐험과 발견」 등 세 부분으로 나뉜 이 시리즈는 인간의 극복행위를 '탐험'이란 일관된 측면에서 저술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 시리즈를 기획에서부터 집필, 색인, 디자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해낸 李炳哲씨(39)는 서문에서 "나는 인류가 기록해온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탐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탐험이라 함은 20세기초까지 행해졌던 '지리학적 발견'의 범주를 벗어나 인간의

한계를 극복대상으로 삼는 모든 진취적, 과학적인 용감한 행동들을 말한다"고 책을 쓴 의도를 밝혔다.

갓가지 모험과 도전행위를 비롯, 학술탐험이나 고고학발굴, 우주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계를 넘나들고 있는 이 시리즈에는 총 1300여장의 기록사진과 100여점의 희귀한 지도들이 산뜻한 레이아웃에 얹혀 더욱 돋보이고 있다. 시리즈의 첫권인 「도전과 모험」에는 바다·하늘·땅·산에 각각 최초로 도전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특히 알프스의 3대북벽을 오른 우리나라의 허영호가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모습도 생생히 기록돼 있다.

「발굴과 인양」편에는 사라진 문명과 인류의 자취를 캐내고자 하는 여러가지 도전들을 담았던 인류역사의 흐름을 엮어나간다. 화산재에 덮인 미이라도시 폼페이를 발굴한 빙켈만, 사상최대 진시황릉이 숨겨온 엄청난 지하도시,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동양최고의 유물선 등등 지구 곳곳에 가득찬 신비를 편저자는 박진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셋째권인 「탐험과 발견」은 '지리상의 발견'과 관련된 탐험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개시키고 있다. 처음으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돈 마젤란과 각 대륙의 개척수난사, 북극과 남극을 찾아낸 극적인 탐험의 순간들이 선명한 사진으로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 시리즈에 쏟은 저자의 각별한 노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인 듯하다. 5년전부터 미국·영국·일본 등을 다니며 책에 들어갈 사진자료들을 직접 구입했으며,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당시의 희귀지도 등 실증자료 또한 꼼꼼히 모았다. 이밖에도 저자는 원고집필은 물론 교정에서 레이아웃, 색인작업까지 혼자 힘으로 직접 해냈다는 것. '첫기록'과 '역사성'에 비중을 두다보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위주가 되었음을 편저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출판물의 짜깁기나 모방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

—김지원 기자